

박삼구·박찬구 회장 동반 퇴진

금호아시아나 '형제경영' 막내려... 호남 유일 대기업 진로 촉각

그룹회장에 박찬범씨

호남의 대표기업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총수 일가가 퇴진하는 대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8면)

이로써 1984년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 사후 25년간 이어온 금호아시아나 그룹 특유의 '형제경영' 전통도 막을 내리게 됐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은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경영 2선으로 물러나고, 화학부문 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구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 대신 항공 부문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범 부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격 추대됐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고 박인천 창업회장의 3남과 4남이며, 박찬범 항공부문 부회장은 영광출신으로 그룹에서 40년 넘게 근무한 전문경영인이다.

그룹 측은 최고경영층이 오너 일가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를 위해 이날 오전 그룹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주주 가계 간 협의의 내용을 토대로 박찬범 항공부문 부회장을 5대 그룹회장으로 추대하고, 박삼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기로 했다.

또 이날 열린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서 박찬구 대표이사 해임안을 가결함에 따라 박찬구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삼구 회장은 "그동안 4형제 가계는 그룹 계열사 주위에 대해 균등출자하고 그룹회장을 추대해 결속했지만, 최근 박찬구 회장이 공동경영 합의를 위반해 그룹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룹 발전과 장래를 위해 해임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삼구 회장이 동생을 해임하고 자신도 퇴진하게 된 것은 최근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대폭 늘려, 금호 오너가의 대주주 지분 균등

비율을 깨뜨린 데 따른 문책과 함께 자신도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그룹 측은 "그룹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종식시키고, 금호석유화학 중심의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그룹 총수가 분인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경영 2선 후퇴를 결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민들은 그룹 오너의 갑작스런 동반 퇴진으로 호남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재계서열 8위인 금호그룹의 향후 진로와 대우건설 등 금호 계열사의 구조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생업 등 검찰출석 힘들면 전화로 진술 가능

앞으로 군(軍) 장병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납부과정이 전면 온라인화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생업 등으로 검찰 출석 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전화로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전화 진술제'도 도입돼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참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는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5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동차피해자 가족지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피부양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연필뉴스



먹구름 낀 도청별관

28일 광주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1년여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옛 도청 별관철거 논란을 반영하듯 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도청 별관 위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검찰총장 김준규·공정위장 정호열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55) 성균관대 법대 교수, 검찰총장에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 2면)

정 공정위원장에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공정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출생의 김 검찰총장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김준규 내정자 <정호열 내정자>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사시 1년 후배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이달 초 대전고검장을 퇴임했으며, 현재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양한 수사분야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안목과 식견도 갖췄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인촌 장관, 10인 대책위 중재안에 부정적

'별관 문제' 사실상 원점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이하 10인 대책위)가 제시한 도청 별관 논란의 대안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유 장관은 10인 대책위의 대안을 포함해 별관의 철거를 전제로 한 아시아문화전당 설계 원안, 원형 보존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밝혀줄 것이며 여지를 남겼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10인 대책위 간사위원인 박광태 광주시장, 조영택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조영택 국회의원과 면담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오월의 문(별관 1, 2층을 뚫어 문을 만드는 안)을 다수안, '3분의 1' 존치안을 소수안으로 내놓았는데 이왕이면 오월의 문안을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3분의 1 존치안이

나 도청별관에 게이트를 내는 안 등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둘 다 응색해서 안타깝다"며 "2개안 모두 지역 갈등을 조정하려고 내놓은 안인데, 나중에 육먹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전당 원 설계안대로 가되, 시민들이 원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도청 별관을 전체적으로 원형 보존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며 "조성위원회와 설계자,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과 면담 및 회의를 통해 여러 안 중에서 하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 여를 끌어온 도청 별관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별관 완전 철거를 고수해온 정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10인 대책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불

가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도청별관을 원형보존하는 것은 2012년으로 예정된 문화전당의 완공 시기를 늦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선택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0인 대책위는 이날 유 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발표문을 내고 "10인 대책위가 건의한 2개 안에 대해 설계자의 기술적 자문과 조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안을 검토해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유 장관의 발언 내용과 다른 해석을 내놓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10인 대책위 간사위원인 조영택 의원은 "장관이 두 개의 안을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답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시민의 뜻을 받아들인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 해당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0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 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면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피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파, 야맹증
- 햇빛 피부로 인해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 허벅지 근육통, 수족냉증, 수족감동

아연의 보급